

老人의 生活滿足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金 明 子

Dept. Home Management, Suk-Myung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Myung Cha Kim**

<目 次>	
I. 研究問題와 目的	1. 標準對象
II.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2. 測定道具
1. 生活滿足度	3. 資料處理
2. 老人의 生活滿足度	4. 研究의 制限點
3. 假 說	IV. 結果 및 解釋
III. 研究方法	V. 結論 및 提言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in Seoul. The data were taken from the interview and the questionnaire with 40 items collected from 192 elderly.

The T-test, F-test were appli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greater life satisfaction is manifested by the aged men than the aged women.
2. The death of spouse is detrimental to the life satisfaction score of the aged.
3.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ose living with and without their married children.
4.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any religion categories.
5. The better educated elderly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an less educated.
6. By increasing social contacts, the aged can strengthen their life satisfaction.

I. 研究問題와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老人의 生活滿足도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1960年代 이래로 出生率과 死亡率의 지속적인 低下는 韓國의 人口動態유형을 高出生, 高死亡에

서 低出生, 低死亡의 유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60年代初의 피라미드型 人口構造에서 점차 鐘型人口構造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 결과 60세이상 老人人口는 약 240만명 정도로 전체人口에 대한 비율은 6.0%이며 老年人口指數(老年人口/生産人口)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非生産, 중속人口에 속하게된 扶養人

므로서의 老人問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韓國의 老人은 老後對策에 대한 個人的, 社會의 준비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產業化, 都市化에 따른 家族制度의 변화, 밀려오는 個人主義풍조 등으로 生活週期の 케도를 잃고 있으며, 따라서 老人問題가 社會問題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家族研究가 家族生活週期の 初期단계에 집중된 경향이였으나 미국에서는 老人人口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20C 중반 이래로(전 人口의 약 10%, 2천만명) 後期단계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²⁾, 韓國에서도 人口의 老齡化, 家族制度, 價值意識의 변화에 따르는 老人問題에 대하여, 지난 10여년간 家政學, 社會學, 醫學, 政治, 經濟學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老人問題는 아직 출발단계에 있으며, 그 자체가 복잡적이고 다양한 性格을 띠우고 있어, 老人의 가족관계 부양, 건강 복지문제등에 대한 研究가 여러 學者들에 의해 선구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노년기의 價値있는 部分보다는 問題點을 제시하는 研究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老人에 대한 研究가 問題意識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反하여, Kalisk는 老化(Aging)란 人間發達단계의 자연스러운 한 過程이며 病理的이거나 異狀한 것이 아니라(not Pathological, Strange) 각 단계별로 독특한 특성이 있듯이 노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發達課業과 특성이 있는 것이라 했다.³⁾

즉 老年期를 問題의 단계로 볼 것이 아니라 人間發達の 연속過程의 한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人間の 可能性은 人生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까지도 남아 있으며 老化는 人間發達の 자연스러운 한 過程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老人을 대상으로 生活全般에 대한 滿足度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서울시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어느 정도이며, 性別, 配偶者有無, 同居子女有無, 宗教, 教育水準 定期的 모임有無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糾明하여 老人의 生活滿足度에 관련된 背景變因을 밝혀내고 老後生活의 指針이 될 原理와 方向性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1. 生活滿足度

生活滿足度는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研究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Hutchison에 의하면 生活滿足度는 個人의 기대와 이것의 충족도여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⁴⁾ 즉 生活滿足度는 生活全般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主觀的 感情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生活의 實際와 期待間의 일치에서 오는 個人的 觀點에 따른 主觀的 個人的 現象으로 心理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에 영향받는 바 크다.

이와같이 生活滿足度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目標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社會的, 情緒的 어려움없이 個人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 하겠다.⁵⁾

2. 老人의 生活滿足度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한 個人이 老化하여 간다는 현실에 成功的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狀態라 볼 수 있는데 成功的 老化(successful aging)의 의미는 個人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며 老化에 따른 특별히 구분된 특정한 模型(single pattern)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價値觀, 自我概念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⁶⁾

즉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初期단계로 부터의 연속적인 過程의 結果로 個人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⁷⁾

이와같이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生活全般에 대한 個人的 主觀的 感情이나 態度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複合的 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概念의 明確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기에 관련된 多角的 變因에 對한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Hays와 Stinnett는 中年夫婦의 배우자관계 건강, 경제, 직업, 자녀관계, 여가와 사회참여, 자아개념등 7개 영역에 대하여 그 滿足度를 조사하였으며⁸⁾ Medley는 재정상태, 건강, 생활수준, 가

정생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하여, Chatfield는 수입, 건강, 은퇴여부, family setting에 대한 研究를 통해 老人의 生活滿足度를 밝혔다.¹⁰⁾

個人的 自覺에 着점을 두고있는 老人의 生活滿足度에 관한 研究는 이처럼 學者들의 觀點에 따라 그 方法과 內容을 달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研究結果를 중심으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노인 生活滿足도와 관련된 變因으로 은퇴, 性別, 수입, 배우자관계, 成人子女관계, 기타(건강, 교육 수준, 주거환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分析, 비교하고자 한다.

老齡期는 人生的 모든 것을 상실하여 가는 시기로 이때 老人이 느끼는 불안, 고립, 소외, 격리는 喪失을 補償받지 못하는 社會心理的 結晶에서 유래된다.¹¹⁾ 家族과 社會集團에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老人에 대한 존경이 老人들의 期待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때 대하여 不滿足과 疎外感을 일으키고 있으며¹²⁾ 老人의 日課, 所望, 異性觀, 애로점 등에 대한 不安과 欲求內容을 分析한 結果에 의하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內容이 지배적이며 행복감과 불행감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¹³⁾

Newman and Newman에 의하면 老人은 결혼 생활, 부모의 역할, 그들의 업적, 전반적인 생활에 걸쳐 젊은이보다 더욱 만족하게 느끼는 경향이 며, 대체로 肯定的인 自我概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⁴⁾

또한 老人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연령은 64~69세로 이 시기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老人은 새로운 役割轉移를 해야하기 때문이다.¹⁵⁾

Palmore & Kivett가 밝히고 있는 종단적 研究는 年齡, 性別에 따른 老人의 生活滿足度에는 차이가 없고 중요한 변인은 자신이 평가하는 건강상태, 생활수준, 사회활동, 가정내 역할등이며 젊은 시절의 滿足度수준이 노인 生活滿足度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것이다.¹⁶⁾ 또한 이 효과 등은 韓國低所得층 老人들의 老後生活에 대한 滿足은 배우자와의 同居, 명분있는 消息, 정기적인 社會活動, 子女들의 잦은 訪問에 의해 영향받는다 한다.¹⁷⁾

1) 은퇴, 사회활동

Cumming & Henry는 老化過程을 自己中心主義(egocentrism)의 증가 현상으로 보고 社會活動이나 책임감 등으로 부터 어느정도 해방된 老人의 滿足度가 높다는 disengagement theory를 주장했으며, 여기에 대해 Havighurst & Neugarten은 老人도 社會的 活動, 社會에서의 相互대인관계에 큰 價値를 둔다는 activity theory를 주장하면서, 노인의 生活滿足度는 老化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役割喪失에 의해 감소된다고 했다.¹⁸⁾ Kalish도 老人들의 대인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心理的 慾求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으며¹⁹⁾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價値있고,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를 주저하며 은퇴후 상실감도 크다고 한다.²⁰⁾ Chatfield에 의하면 최근에 은퇴했거나, 은퇴한지 12個月 미만인 사람의 生活滿足度는 은퇴하지 않은 사람보다 뚜렷하게 낮았으나, 은퇴한지 1年以上된 사람과, 은퇴하지 않은 사람간에는 차이가 없었다.²¹⁾ 老夫婦는 남편의 은퇴로 긴장감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부인의 경우, 家事勞動者로서의 전통적 役割은 계속되므로 은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남편은 가정내 役割보다는 사회적, 직업적 役割에서 더욱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고, 은퇴로 인하여 도구적 役割이 상실되며, 직업, 사회로부터 고립되므로 그 영향이 생활전반에 심각하게 미칠 우려가 있다. 은퇴후의 成功的인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手段의 役割을 家庭內에서의 表現的 割役로 대치시켜야 한다.²²⁾

은퇴후 남편의 成功的인 적응은 家庭內 役割에 어느 정도 참여하며 아내와의 동료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결국 남편의 은퇴는 夫婦 모두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문제라 하겠다.

2) 性 別

子女가 독립해 나간 뒤 夫婦間의 滿足度는 증가하는 편이나, 婦人은 子女가 독립해 나감으로서 어머니의 役割이 감소되어 시간과 energy가 남게 되므로 새로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男便은 은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²³⁾

남편은 家族內 役割보다는 職業的 役割에서 더욱 滿足을 얻는 경향이며, 家族이 없는 男子老人의 자살, 알콜중독, 事故死의율이 높고, 家族이 없는 女子老人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간다.²⁴⁾

男子老人에게는 건강, 직업에 대한 滿足도가, 女子老人에게는 결혼생활에 대한 滿足도가 生活 滿足도에 가장 깊은 연관이 있다.²⁵⁾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男女老人 모두에게 가정 생활에 대한 滿足이 生活 滿足도에 가장 중요하며, 두번째로 중요한 要因은 女子老人에게는 生活水準에 대한 滿足, 男子老人에게는 건강에 대한 滿足이라고 한다.²⁶⁾

3) 收 入

Kalish에 의하면 비교적 安定된 生活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生活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고, 또한 혼자 남는데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은 老人의 生活 滿足도가 비교적 높다고 한다.²⁷⁾

低所得老人의 生活 滿足도가 높은 경우도 있으나 高所得老人의 生活 滿足도가 낮은 경우는 적어서, 收入이 적다고 반드시 生活 滿足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높은 收入은 보다 높은 生活 滿足도에 기여한다. 즉 높은 收入과 經濟的 安定이 老人의 生活 滿足도에 중요한 變因이며, 은퇴한 老人의 生活 滿足도가 낮은 것은 役割의 喪失에 기인하는게 아니라 은퇴에 따르는 收入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며, 은퇴, 건강문제, 주거지 등은 收入이 많은 老人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²⁸⁾

Hutchison의 研究에서도 收入이 적은 老人일수록 配偶者有無에 관계 없이 행복감, 만족감이 적으며, 고독, 걱정감이 높아 빈곤수준(poverty level) 이하에서는 配偶者有無가 老人의 滿足感에 아무런 關係가 없었다.²⁹⁾

이에 대해 Medley는 經濟狀態 자체가 老人의 生活 滿足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要因은 아닌 듯하며 실제의 經濟狀態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觀點(perceived financial adequacy)이 더욱 중요했다고 했다.³⁰⁾

4) 配 偶 者

配偶者가 있는 老人이 홀로된 老人보다 정신적 질환(mental illness)이 적은 경향이³¹⁾ 혼자된

男子老人의 사망율은 配偶者가 있는 老人의 2배라고 한다.³²⁾

同僚感(Companionship)이 특히 老夫婦에게 중요하며, 홀로 된 사람은 配偶者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人生의 의미, 목표 등을 얻기 어려우므로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배우자 사망은 女子老人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데 이것은 經濟的 위협과, 아내의 役割喪失,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社會的 地位喪失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경우 친밀한 친구관계가 老人의 士氣에 도움이 된다.³³⁾ 이에 대해 남자노인이 社會生活은 다양하지만, 긴밀한 친구관계가 적고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 老人이 드물어 배우자 사망은 남자 노인에게 더욱 타격적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⁴⁾ 이와같이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을 때 心理的 편안함을 가지며 滿足感도 높은 듯하다. Gubrium에 의하면 고립감보다는 老人의 喪失感이 生活 滿足도와 否定的 關係가 있다고 하는데 홀로된 老人은 더이상 喪失의 열려가 없는 反面, 配偶者가 있는 老人은 앞으로 닥칠 配偶者喪失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고 한다.³⁵⁾

5) 成人 子女關係

Nye는 物質的 扶養, 身體的 보살핌 등 끊임없는 관심을 원하는 依存의 父母(dependent parents)는 6%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老父母는 子女와 社會的 情緒的으로 가까운 關係를 가지며, 子女를 성숙되고, 독립적인 成人으로 인정한다고 한다.³⁶⁾

老齡化에 따라 社會的 활동이 감소하므로 老父母가 子女보다 더욱 子女와의 愛情的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며, 생활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³⁷⁾ 子女가 가까이 없을 경우 친구, 이웃이 老人의 滿足感에 기여한다.

결혼한 子女와 함께 사는 老人이 가장 높은 安定感은 가지며, 老人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그들의 子女와 孫子女라고 한다.³⁸⁾

6) 기타(건강, 교육수준, 주거환경)

건강이 老人의 滿足感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이지만, 높은 收入을 가진 집단에서는, 慢性의인 병을 가진 老人과 건강한 老人間에는 滿足感에 차이가 없었다.³⁹⁾

또한 老人의 適應力은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좋

Table 1. 조사대상자의 一般의 背景

배경변인	내 용	남자노인 N ₁ =73	여자노인 N ₂ =119	계 N=192	배경변인	내 용	남자노인 N ₁ =73	여자노인 N ₂ =119	계 N=192
1. 연 령	60~65세	34.2%	34.5%	34.4%	2. 동 거 가족수	1 ~ 3명	31.5%	26.1%	28.1%
	66~70세	30.1	25.2	27.1		4 ~ 6명	49.3	58.0	54.7
	71~75세	19.2	22.7	21.4		7 ~ 9명	16.4	15.1	15.6
	76~80세	11.0	10.9	10.9		10명이상	2.7	0.8	1.6
	2 이상	5.5	6.7	6.3					
3. 배우자 유 무	사 별	15.1	62.2	44.3	4. 동거가 족	큰 아 들	56.2	58.8	57.8
	별 거	1.4	4.2	3.1		그외의 자녀	26.0	28.6	27.6
	동 거	83.6	33.6	52.6		노부부만	16.4	5.9	9.9
				혼자, 기타		1.4	6.7	4.7	
5. 종 교	기 독 교	20.5	26.9	24.5	6. 교육정 도	무 학	2.7	43.7	28.1
	불 교	26.0	43.7	37.0		서당, 국졸	37.0	34.5	35.4
	천 주 교	5.5	8.4	7.3		중, 고, 졸	31.5	19.3	24.0
	기타없음	47.9	21.0	31.3		전문대이상	28.8	2.5	12.5
7. 결혼한 자 녀들의 방 문 빈도	하루한번	4.1	2.5	3.1	8. 정기적 사회모임	있 음	63.0	49.6	54.7
	1주일에 한번	17.8	20.3	19.3		없 음	37.0	50.4	45.3
	한달에 한번	30.1	24.4	26.6					
	특별한날	47.9	50.4	49.5					
	자녀없음	—	2.5	1.6					

았으며⁴⁰⁾ 비교적 통제가 적고 個人的 成長發達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 老人의 滿足感이 높았는데, 이것은 老人이 기본적 發達課業을 더 이상할 수 없다고 자각할때 不滿足함을 알 수 있다.⁴¹⁾

3. 假 說

以上の 研究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6 가지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1〉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性別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2〉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配偶者有無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3〉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同居家族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4〉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宗教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5〉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教育水準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6〉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定期的 모임 有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標集對象

調査對象은 서울시에 居住하는 60세 以上 男女 老人 192 명이며, 질문지를 통한 面接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背景은 〈表 1〉과 같다.

2. 測定道具

調査道具는 노인의 生活滿足度측정을 위한 질문지로서 ① 건강 ② 배우자관계 ③ 경제 ④ 자녀관계 ⑤ 여가 및 친구관계 ⑥ 자아개념 ⑦ 주거환경 ⑧ 生活觀의 8개 영역에 걸친 내용이며, 각 영역

Table 2. 男女老人의 生活満足度

문항	영역	남자노인		여자노인		전체		t-test 남자노인 : 여자노인
		\bar{X}	SD	\bar{X}	SD	\bar{X}	SD	
1~5	건강	17.6	3.7	16.1	4.0	16.7	4.0	2.59*
6~10	배우자관계	17.8	3.6	16.3	4.3	16.9	4.1	2.69**
11~15	경제	16.9	3.3	16.1	3.2	16.4	3.2	1.66
16~20	자녀관계	17.4	2.7	17.3	3.4	17.3	3.2	0.15
21~25	여가및친구관계	16.9	3.4	15.8	3.7	16.2	3.6	2.12**
26~30	자아개념	18.3	2.6	17.7	3.0	17.9	2.8	1.44
31~35	주거환경	17.8	2.8	18.4	3.2	18.2	3.0	-1.48
36~40	생활관	16.1	3.3	14.8	3.2	15.3	3.3	2.71**
전체 생활만족도		138.8	16.4	132.6	18.3	135.0	17.8	2.45*

Table 2-1. 男子老人의 生活満足度 상관계수

영역	건강	배우자관계	경제	자녀관계	여가및친구관계	자아개념	주거환경	生活觀	전체 생활만족도
건강	1.000								
배우자관계	.007	1.000							
경제	.145	.387***	1.000						
자녀관계	.259*	.539***	.482***	1.000					
여가 및 친구관계	.340**	.361***	.425***	.358***	1.000				
자아개념	.232*	.454***	.501***	.557***	.504***	1.000			
주거환경	.025	.240*	.293**	.337**	.517***	.371***	1.000		
生活觀	.224*	.314*	.415***	.278**	.551***	.544***	.266**	1.000	
전체 생활만족도	.441***	.631***	.693***	.709***	.778***	.773***	.543***	.689***	1.000

* $p < .05$, ** $p < .01$, *** $p < .001$

별로 5개의 문항을 두어 모두 40 문항이다*

측정기준은 “매우 동의한다(5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尺度(5Point Likert-Tyde)이며 以外에 응답자의 一般의 背景을 나타내 주는 人的 사항에 대한 문항이 9개 첨가 되어있다.

3. 資料處理

1981년 10월 25일에서 31일에 걸쳐 老年學堂의 를 받은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2학년 학생이 調査對象老人과 직접 면접을 하여 研究하였다.

250명의 老人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비한 것을 제외한 192명을 本 研究의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資料分析은 응답자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개의 각 문항마다 1~5점의 무게를 두어 합계 40~200점이 되도록 채점한뒤 평균을 내어 生活満足度 평균점수를 내었으며, 8개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도 내었다.

다음에 性別, 配偶者有無, 同居家族, 宗教, 教育水準, 定期的 모임有無別로 분류하고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 t검증을 통한 有意度

* 測定道具를 半分法(Half-Split Method)에 의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상관계수는 .68703이었으며 이것을 Spearman Brown 공식으로 교정하니 .81449였다.

Table 2-2. 女子老人의 生活滿足度 상관계수

영역	전강	배우자관계	경제	자녀관계	여가 및 친구관계	자아개념	주거환경	생활관	전체 생활만족도
전강	1.000								
배우자관계	.065	1.000							
경제	.155	.204*	1.000						
자녀관계	.224**	.354***	.404***	1.000					
여가 및 친구관계	.332***	.193*	.420***	.633***	1.000				
자아개념	.961***	.292***	.350***	.718***	.577***	1.000			
주거환경	.224**	.069	.388***	.068***	.569***	.627***	1.000		
생활관	.122	.324***	.217**	.512***	.532***	.575***	.274***	1.000	
전체 생활만족도	.448***	.509***	.579***	.832***	.800***	.775***	.686***	.663***	1.000

Table 3. 背景변인에 따른 老人의 生活滿足度

배경변인	집단	X	SD	F-test	배경변인	집단	X	SD	F-test
1. 배우자	사별	131.4	18.3	8.246***	2. 동거가족	장남	134.4	18.0	.965
	별거	116.3	6.1			장남외의 자녀	134.1	18.0	
	동거	139.1	19.6			배우자	141.5	14.7	
			혼자	133.6		20.4			
3. 종교	기독교	136.9	18.2	1.520	4. 교육수준	무학	129.2	19.4	4.349**
	불교	135.6	18.6			국교, 한글해득	137.3	16.6	
	천주교	140.6	14.4			중, 고졸	133.8	17.1	
	없음	131.4	17.1			대졸, 그 이상	143.3	14.9	
5. 정기적 모임	있음	143.1	15.5	64.1***					
	없음	125.1	15.4						

검증을 하였다.

4. 研究의 制限點

① 標集數가 적으며 無選標集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② 測定道具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標準化되지 못한 점이 있다.

③ 응답자 個人的 성격, 가치관에 따라 滿足하는 상황이나 기준 내용들이 다양하며 社會的 道德的으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일괄적으로 一定한 기준에 의하여 滿足度를 測定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V. 結果 및 解釋

資料處理結果를 전체적인 경향으로 分析한 것이 <表 2>인데, 이에 의하면 서울시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135.0이며 8개 영역중 주거환경에 대한 滿足度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아개념, 자녀관계의 순서였으며, 가장 낮은 滿足度를 보인 것은 여가 활동이었다.

다음에 資料處理 結果를 假說別로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假說 1>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表 2〉에서와 같이 男子老人의 満足度는 138.8 (200점 만점) 女子老人의 満足度는 132.6(200점 만점)으로 男子老人의 満足度가 有意한 差異(p<0.5)로 높게 나타났다.

의미있는 差異를 나타낸 것은 건강(p<0.5), 배우자관계(p<0.1), 여가 친구관계(p<0.5) 생활觀(p<0.1)의 4개 영역이며, 모두 男子老人의 満足度가 높게 나왔다.

따라서 주어진 〈假說 1〉은 肯定되었다.

이처럼 女子老人의 生活満足度가 낮은 것은 폐쇄적인 女性生活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女性教育은 가족 생활주기의 初期단계 뿐만아니라, 子女를 독립시키고 난 後인 老年期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示唆하고 있다.

〈假說 1〉에 부수된 문제로 老人의 生活満足度와 각 영역별 상관계수가 〈表 2-1〉, 〈表 2-2〉에 나타나 있는데, 8개영역 모두 뚜렷한 相關이 있으며, 男子老人은 여가활동에 대한 満足度가 女子老人은 자녀관계에 대한 満足度가 특히 전체 生活満足度와 相關도가 높았다.

〈假說 2〉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配偶者有無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각 背景變因에 따른 老人의 生活満足度가 〈表 3〉에 나타나 있는 때, 이에 의하면 配偶者가 있는 老人의 生活満足度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사별, 별거의 순서로 集團別로 뚜렷하게 의미있는 差異(p<0.01)를 보여 〈假說 2〉는 肯定되었다.

이것은 生活을 함께 해 온 동반자, 性生活 Partner, 配偶者로 인한 地位, 役割喪失 등이 配偶者를 잃는 것과 함께 오는 고통이며 죄책감, 치욕감도 따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配偶者의 사망은 情緒的, 財政的원천에 위협을 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生活樣相을 요구하므로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그 役割을 再組織(reorganization)하는 것이 홀로 된 老人의 主要 發達課業이라 할 수 있다.

종교 혹은 생과 死에 대한 철학을 가져 安定感 있는 生活을 영위하고, 생과 死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함은 물론⁴²⁾ 자녀 및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人生에 대한 낙관적 태도, 경제적 安定, 취미활동, 友情 등은 홀로 된 시기의 適

應에 도움이 된다.⁴³⁾

〈假說 3〉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同居家族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西歐의 老人들이 個人主義的이고, 독립생활이 습관화되어 成人子女와도 相互平等한 역할교환이 관습화되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老人은 家族主義(familism)에 젖어 子女에게 의존적이며, 지나치게 기대가 큰 데에서 더욱 단절감과 고독감을 느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同居家族이 누구냐에 따라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假說 3〉은 否定되었다.

이것은 長男이 老父母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과는 달리, 老人의 慾求水準이 再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子女와의 物理的 同居보다는 社會, 心理的 거리(socioemotional distance)가 더욱 중요함을 나타내 준다.

결국 장기적인 예측으로는 社會와 價値觀의 변화에 따라 別居志向的 경향이 보이며, 長男이 父母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家族倫리가 변화하고 있어 老父母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치 못하여 老人이 不安定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老人의 自我확립을 통한 慾求水準의 조정능력이 要求됨은 물론, 老人세대를 가족이 흡수 활용하여 노인의 소외감을 방지하고 家族員의 情緒的 安定을 분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假說 4〉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宗教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없음의 순으로 나왔으나 集團別로 의미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아 주어진 〈假說 4〉는 否定되었다.

이것으로 宗教의 종류는 노인의 生活満足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宗教를 믿는 집단의 満足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假說 5〉 老人의 生活満足度는 教育水準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表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문대, 그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서당, 국졸, 중고졸, 무학의 順으로 나왔으며 集團別로 의미있는 差異를 보여 (p<0.01) 주어진 〈假說 5〉는 肯定되었다.

이것은 현재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는 老人學校가 하나의 소일거리 또는 오락의 장소라는 관념을 벗어나, 老人의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격려하고 자신의 地位와 役割을 새롭게 발견하여 능동적인 生活主體가 되도록 도와야 하며, 老人學校教育和 병행하여 매스콤등을 통하여 多數의 老人을 對象으로 하는 Program도 적극 개발되어야 함을 示唆하고 있다.

〈假說 6〉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定期的 모임 有無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老人에게는 하루를 기준으로 (daily basis) 보면 너무 많은 여가 시간이 있으나, 긴 안목으로 (long range) 보면 人生의 종말까지 너무 적은 시간이 남아있어 이러한 이중성이 老人의 감정, 행동 등에 갈등을 야기시키며, 또한 老人은 公同의 初期社會化 과정을 함께 겪은 같은 나이 또래 (agepeers)와 같이 지낼때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⁴⁴⁾

〈表 3〉에 의하면 定期的 社會모임이 있는 老人의 生活滿足度가 없는 老人보다 뚜렷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p < .001$) 주어진 〈假說 6〉은 肯定되었다.

人間은 누구나 그의 신념, 그가 속해있는 集團, 地位등에 의해 社會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老人 스스로가 그의 시간을 알맞게 組織, 計劃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정부, 社會의 老人을 위한 여가선용 Program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の 分析結果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市 老人의 生活滿足度 平均値는 135.0 점이며 (200 점 만점) 8개 영역중 주거환경에 대한 滿足度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滿足度를 보인 것은 여가활동이었다.

2.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性別, 配偶者有無에 따라 差異가 있으리라는 〈假說 1〉, 〈假說 2〉는 肯定됨으로써 男子老人, 配偶者와 同居하고 있는 老人의 滿足度가 높음을 나타내 준다.

3.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同居家族, 宗教에 따라 差異가 있으리라는 〈假說 3〉, 〈假說 4〉는 否定되어 어느 子女가 老父母를 모시는가, 어떤 宗教를

갖는가가 老人의 生活滿足度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드러내 준다.

4.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教育水準, 定期的 社會모임 有無에 따라 差異가 있으리라는 〈假說 5〉, 〈假說 6〉은 肯定됨으로써 老人教育, 社會活動의 必要性을 나타내 준다.

결국 人口의 老齡化, 核家族化는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러한 과도기에서 韓國의 老人들은 物質的, 心理的인 이중문제를 안고 있음을 감안할 때 本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한다.

1. 老年期를 人間發達의 자연스러운 연속과정의 한 단계로 취급하여 老人의 喪失感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老人에게도 다른 年齡층과 마찬가지로의 慾求, 배울수 있는 능력과 適應力이 있음을 받아들여 老人의 資源을 활용하고 감정을 살릴수 있는 社會制度的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2. 家政科教育은 家族發達段階의 初期段階뿐만 아니라 全生涯를 통한 총괄적인 人間發達의 과정을 보는 긴 안목을 갖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3. 老後의 새로운 役割에 대한 適應, 창조적인 여가선용, 죽음에 대한 준비 등의 energy의 재조정을 위하여 老人자신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老人教育 Program이 요구된다.

4. 老人의 生活滿足度는 여러가지 背景變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젊은 시절부터 長期間에 걸쳐 이루어진 個人의 성격, 인생관등 主觀的 要因에 영향받는 바 크므로 肯定的이며 樂觀的인 생활태도, 행복의 습관등을 길러나갈 수 있는 어린시절부터의 生活教育이 요망된다.

參 考 文 獻

1. 東亞日報社, 「東亞年鑑」 1981, pp.101~102.
2. Nye F.I. & Berado F.M., *The Family*, (N. 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3), p. 563.
3. Kalish R.A.,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1975), p. 1.
4.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

- 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 of Gerontology*, (Vol.31, 1976), pp.448~454.
5. Kalish R.A., *op. cit.*, p. 56.
 6. *Ibid.*, p. 66.
 7. Medley M.L.,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 (Jan. 1977), pp.5~10.
 8. Hayes M.P., & Stinnett 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Economics*, (Vol. 63. 1971), pp. 669~674.
 9. Medley M.L., *op. cit.*, pp.448~454.
 10. Chatfield W.F.,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of Gerontology*, (Vol.32. 1977), pp. 593~599.
 11. 李貞淑, “老人福祉와 老人福祉프로그램,” 「사회복지 제54호」(1977), p. 54.
 12. 權圭植, “核家族化와 老人問題,” 「성곡논총 제4집」(1973), p. 664.
 13. 林春植, “韓國老人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7, p. 53.
 14. Newman B.M. & Newman P.R., *Development Through Life*, revised e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9), pp.475~480.
 15. Kalish R.A., *op. cit.*, p.55.
 16. Palmore E. & Kivett V.,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 of Gerontology*, (Vol. 32, 1977), pp.311-316.
 17. 李尙再·池淳·朴敏子, “韓國 低所得層 老人生活에 관한 社會 經濟 및 空間問題 研究,”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집) (이화여자 대학교, 1979), pp.239-288.
 18. Newman B.M. & Newman P.R., *op. cit.*, pp. 475~480.
 19. Kalish R.A., *op. cit.*, p. 55.
 20. Gordan M., *The American Family: Past, Present, and Future* (N.Y.: Random House Inc., 1978), p. 338.
 21. Chatfield W.F., *op. cit.*, p.593.
 22. Nye F.I. & Berado F.M., *op. cit.*, pp.563~590.
 23. Leslie G.,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4th 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593~604.
 24. Skolnick A. & Skolnick J.H., *Family in Transition*, 3rd ed., (Boston: Little, Brown Co, 1980), pp.509~512.
 25. Berardo F.M.,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NCFR, nov. 1980), p.209.
 26. Medley M.L., *op. cit.*, p.454.
 27. Kalish R.A., *op. cit.*, p. 57.
 28. Chatfield W.F., *op. cit.*, pp. 593~599.
 29. Berardo F.M., *op. cit.*, p.209.
 30. Medley M.L., *op. cit.*, p.454.
 31. Kenkel W.F., *The Family in Perspective*,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p. 491.
 32. Dvval E.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N.Y.: J.B. Lippincott Co., 1977), p.426.
 33. Gordan M., *op. cit.*, p. 350.
 34. Adams B.N., *The Family*, 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0), p. 354.
 35. Berado F.M., *op. cit.*, p.209.
 36. Nye, F.I. & Berado F.M., *op. cit.*, pp.577~585.
 37. Medley M.L., *op. cit.*, pp.448~454.
 38. 유영주, 「家族關係學」, (교문사, 1982), pp. 292~298.
 39. Chatfield W.F., *op. cit.*, p. 596.
 40. Kalish R.A., *op. cit.*, p. 56.
 41. Wolk S. Telleen S.,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Residential Constraint”, *J. of Gerontology*, (Vol.31, 1976), p. 97.
 42. 劉永珠, 「前揭書」, p.291.
 43. Duvall E.M., *op. cit.*, p.427.
 44. Kalish R.A., *op. cit.*, p. 87